

# 정부 '스마트공장'에 물심양면... 中企 제조혁신 이끈다

중기부-식약처, 구축 지원 맞손  
품질향상, 해협인증 우선심사 등  
중소기업·벤처 혁신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오후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식·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중앙 왼쪽)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중앙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공장'이 위기에 빛을 발할 재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다.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았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손 소독제, 마스크 생산기업 등 18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상생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을 50%까지 늘리는 등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수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스마트공장 구축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HACCP 인증 등 우선 심사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인공지능(AI) 분석·활용 지원 통해 바이오 분야 생산 효율 극대화 등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첨단·혁신의료기기 스타트업·벤처기업 발굴·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도 협력을 통해 식품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올해에도 식품 중소·벤처기업들의 '스마트 HACCP'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총 5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60개 기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또 '스마트 HACCP' 도입 기업에 대한 불시평가를 면제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도 개정,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단시약 등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아놓고도 생산물량이 팔려 제

때 공급을 못하는 등 애로가 많아 스마트공장이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기부 조주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시약업체들이 최근 단기수주가 증가해 생산성 향상이 공통적으로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조현장에서 대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품질 유지를 위한 철저한 구분관리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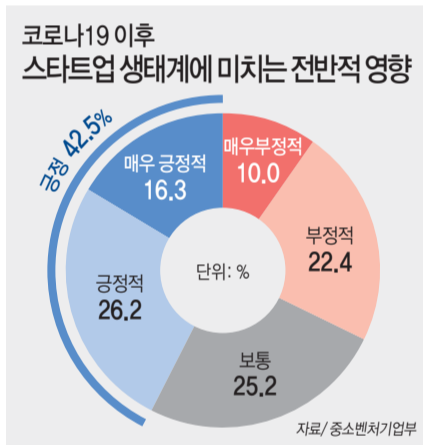
실제 진단키트 생산 A사의 경우 이달부터 기존 생산량의 5배, 8월부터는 20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미 해외에서 수주해 놓은 상태여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 혁신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들 진단키트 제조사 4곳 외에도 손소독제 생산업체 6곳, 마스크 생산 8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스타트업, 코로나 이후 의료·교육 유망

중기벤처부, 492곳 대상 조사  
코로나19,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  
긍정적 42.5%, 부정적 32.4%



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를 1·2위로 꼽았다.

코로나19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란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다소 앞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4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해 12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 분야 1위로는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 의료 등 의료분야가 스타트업들의 선택을 받았다.

2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위는 온라인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상회의나 원격 근무 등 오

피스 분야, 홈 트레이닝 등 액티비티 분야 등도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42.5%는 코로나19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32.4%,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5.2%로 조사됐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의 64.6%는 환경 변화로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전기요금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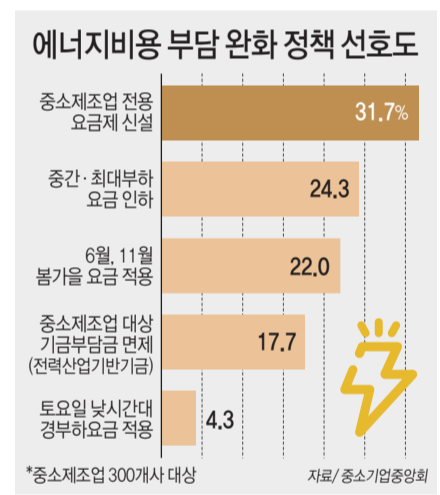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요금 개편시 中企 90% 요금 증가  
경부하요금 인상 주요 애로사항에  
94.7% '가격경쟁력 저하' 꼽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현재의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과 중간·최대 부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를 실시,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94%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부하요금 인상 시에는 90.0%의 중소기업이 요금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1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 조업 등을 경험한 기업 비중은 76.3%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94.7%)를 우선 꼽았다. '경부하시간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5.3%)가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 11월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 중기유통센터 '아임쇼핑' 입점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아임쇼핑'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임쇼핑 정책매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용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면세점·대형백화점·교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우수상권 중심으로 전국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아임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에게 오프라인 판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장, 아임쇼핑 전문 판매사원, 물류센터, 시준별 연출 등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일체 제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중소기업이 큰 부담 없이 우수상권 내 중기제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업계 평균수수료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아임쇼핑은 평균 판매수수료 20% 초반대의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다. 자세한 매장안내와 사업신청 방법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중기유통센터는 현대백화점교점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아임쇼핑 상생특가전'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한샘, 中企상품 활성화 '드리머마켓' 운영

한샘물서 내달 말까지 특별기획전

한샘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기획전 '드리머마켓'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드리머마켓' 기획전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활동 일환으로 펼친다. 이를 위해 '한샘몰'에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 할 수 있게 해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유통 판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한샘은 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 패브릭 업체인 '더베딩샵', '화인'과 식품 업체 '아름담', '트립티' 등 총 10여 곳의 우수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했다. 뽑힌 업체들은 '드리머마켓'에서 패브릭, 생활용품, 식품까지 총 3가지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식품 카테고리에선 무농약으로 키운 새싹보리 분말과 국내산 여주로 만든 여주즙을 판매하고 귀리, 울금, 톳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누룽지도 만나 볼 수 있다. '드리머마켓'에서는 기존 '한샘몰'에서 볼 수 없었던 특색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판매한다. 참여



중소기업 업체는 순차적으로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한샘은 '드리머마켓' 기획전을 '한샘몰' 메인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한샘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푸시 알림을 내보내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전상품 무료배송과 구매 후 포토후기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한샘포인트'를 적립해주며 판매 활성화를 돕는다.

/김승호 기자